

# 쇠퇴해가는 미국 수의 침구학의 명성 한의학의 허와 실

**장 칠 봉**

미국 Rose Slouson Animal Hospital 원장,  
국제수의침구사협회 공인수의침구사  
cbchangdvm@gmail.com



한의학의 좋은 점을 치료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인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인 동양 의학을 비교해보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수의사회지에 지난 해 부터 7차례에 걸쳐 한의학과 서양 의학을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기술하였습니다. 이들 글에서 제시한 임상에는 본인이 미국에서 지난 30여년간 현대의학 임상수의사로서 또는 전통의학 공인수의침구사로서 임상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의사 또는 수의사가 다루어야 할 질병은 무수히 많은 것에 비해 본인이 지난 7차례에 걸쳐 제시한 임상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히 적은 일부지만 의학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한인 수의사님들이 양방이나 한방이나를 선택하여 임상에 응용할 경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더 이상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 양한방에 관한 본인의 연재글을 끝맺을까 합니다.

필자가 미국에서 공인수의침구사 자격증을 갖고 수의병원을 운영하였기에 동양 의학에 관심있는 고객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곤했습니다. 질문이 많은 순서 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침으로 사지를 못움직이는 개를 치료하느냐?
- (2) 침으로 또는 한방료법으로 기능저하가 생긴 장기, 심장, 신장, 간 등을 치료할 수 있느냐?
- (3) 침으로 피부병 또는 안면마비증을 치료하느냐?
- (4) 침 또는 한방료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 (5) 수의사가 병의 원인도 모른다고 하는 아픈개를 한의학으로 치료하느냐? 등입니다.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에 무슨 답을 했는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보담 현대의학인 양의학과 전통의학인 한

의학에 대해 간략한 비교설명으로 그 답을 대신해야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우리 한인 수의사님들께서도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이들 질문에 답을 하실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서양의학인 현대의학은 근거를 중심으로 설정된 근거 의학입니다. 근본적으로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설정한 자료와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동(양)의학인 한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념에 익숙한 서양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의학은 원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의사'를 의사로 부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행할 수 있는 권한, 진단하고 시술하고 약 (한약은 미국에선 식품이지 약이아닙니다)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한의사'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2)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을 타겟으로 삼아 처방 또는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예를 들면 간이 나쁜 환자의 치료 타겟은 간입니다. 타겟인 간 자체를 격리시켜 치료하고자 합니다. 즉 증상을 알고 그 증상과 관련된 원인을 아, 은 그 원인을 타겟으로 치료합니다. 또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 질병 자체에 중점을 주고 치료하고자 합니다. 병의 증상을 보고 그 증상으로 주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그러니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에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합니다.

(3) 그러나 한의학은 타겟으로 삼은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부조화를 치료하면 병은 자연히 치료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하기 앞서 신체의 조화를 치료하면 병은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병명을 모르는 병을, 원인도 모르는 병에도 구해 받지

않고 치료를 시도합니다.

(4) 한의학 및 침구학에서는 신체의 장기는 12 장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12 장부는 심, 간, 신, 폐, 비, 심포, 위, 담낭, 소장, 대장, 방광, 삼초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실지 존재하지 않는 해부학 명칭은 삼초입니다. 삼초는 타장기가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초는 현대의학 해부학에서는 내분기장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5) 한의학에서는 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뇌의 기능을 혈액이나 심장이 한다고 합니다.

(6) 한의학 임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기인 비장은 그 기능면에서 현대의학의 비장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비장은 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비장은 현대의학의 비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현대의학의 약제는 동식물 또는 광물질 속에 존재하는 특정 화학물질을 추출해서 만들어 지거나 개발된 (인공)물질입니다. 때문에 어떤 성분의 물질이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복용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한의학 약제는 식물은 물론이고 비식물성으로 뼈, 화석, 거북, 뱀, 곤충, 벌침, 웅담, 사슴뿔, 조개껍질, 물고기, 진균류, 등 대부분의 자연물이 있는 그대로 포함된 자연산입니다. 미국에선 한의학 약제를 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식품일 뿐입니다. 식품으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와같은 동식물이나 광물질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섭취하는 자연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약제는 자연산이니 양약제 보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식품 선택을 조심해야 하는 당뇨병이나 간질환 환자에는 한약제가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한방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런 식품(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현명 합니다.

(9) 한방약제는 약의 구성 성분을 약물의 편성, 즉 약제의 모양, 감촉, 온도, 맛으로 분류해서 방제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온이 높은 환자에게 찬느낌의 식물을 섭취하게 하여 체온이 높아진 환자의 체온을 낮추게 하여 또는 낮추었다고 믿게하여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자 합니다. 즉 자연료법제입니다. 그러나 실지 한방약제를 조제 처방해 보면 같은 약초라도 완전히 다른 약성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약초는 지한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정반대 역할인 발한제로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한방에서 주장하는 것도 한의학 이론에서 보면 틀린 주장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의

사들은 동일한 약물을 복용하게 해서 결과가 정반대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의사들은 한방의 효과를 확실하지 못하기에 처방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대의학으로 병의 원인을 몰라 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 또는 현대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의 발생이 분명할 경우에는 한방이론(예, 약물의 사기오미, 팔강변증, 음양오행, 등)에 의거하여 한약을 처방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처방하는 방법으로는 일차 처방을 10일 복용한 후 치료의 효과 또는 변화여부를 재검해서 한약을 재처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10) 침은 통증치료에 효력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대체의학위원회에서 침의 작용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은 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근육, 척수, 뇌에서 진통제인 모르핀 같은 화학 물질을 방출하게 합니다. 특히 경혈인 양능천이나 족삼리에 자침하면 보다 많은 모르핀이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니 통증치료에 효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침자리 즉 경혈은 말초신경계 근집에 주로 분포하고 있기에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또한 수혈인 방광경 침자리는 척추와 나란히 놓여있어 주로 장기의 치료와 진단에 이용합니다.

(11) 한의학에선 병을 치료하기 위해 깨어진 신체의 조화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신체의 조화는 더 나아가 음과 양 즉 자연의 조화와 밀접한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의학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소우주로 여겨 그 깨어진 자연의 조화를 치유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닌, 임상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12) 한의학은 생체의 자연 치유력을 도와 생체가 정상으로 이루어도록 촉진시켜 주는 의학입니다. 한의학의 키 포인트인 '자연 치유력'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움직이는 (또는 살아있는) 우주 만물에는 스스로 원상으로 되돌아 오고자 하는 자연복구력 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비행기나 배 역시 자연복구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비행기를 조종해봐서 아는 사실이지만, 비행기가 평행을 유지하면서 비행하다가, 돌풍, 기압변이 또는 조종실수 등으로 날개가 한쪽으로 조금 기울게 되면 조종사가 수정해주지 않아도 비행기의 자연복구력이 비행기를 평행 상태로 원상복구시켜 비행기는 정상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많이 기울면 비행기의 자연복구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비행기는 급히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의 자연 복구력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연료법제와 같은 것입니

다. 비행기의 자연복구력에서 보다시피, 한의학은 생체의 자연 치유력을 도와 가만히 놔두어도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을 좀 더 빨리 회복해주는 의술입니다. 더 깊은 질병이 되기전에 치료하는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의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은 질병은 한의학으로는 치유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 그렇다면 필자는 왜 지난 30여년을 동서의학으로 동물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느냐고 질문을 듣곤합니다. 병을 치료하다보면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수술비의 부담 때문에 치료를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치료비도 적게 들고 병의 원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연치유력에 근거한 민간요법 같은 대체의학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 소수의 미국인 의사들은 30여년 전부터 동(양)의학을 공부해서 동물치료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아주 간단한 쇠바늘로 침을 놓아 견지 못했던 환자가 금방 견게 되는 것을 보고“침은 기적의 의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6개월 과정의 수의침술 강좌에 정원을 초과할 만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일이 지나면서 침술 또는 한의학의 한계를 알게되어 지금은 수장을 신청하는 의사들이 아주 적습니다. 또한 한약처방법은 미국 의사 연수 교육 과목으로 인정될 만큼 지난 수년간 명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부터 한약은 연수과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유는 한약은 치료면에서 프라스보(placebo) 이라고 판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라스보는 성분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도 환자가 효과를 본다고 느끼게 되는 엉터리 약(fake drug)을 말합니다.

(15)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췌장 전체의 5% 정도 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잡스는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싫어했고 침, 자연요법, 민간요법 등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다 9개월 후 암이 췌장 전체로 전이된 상황에서 늦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나중에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잡스도 처음 부터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을 받고 수술 후 항암제와 침치료를 병행했으면 생명을 보다 더 연장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자의 병원으로 지난 4년간 오늘도 계속해서 매 주 한번씩 침치료를 받고 있는 저의 단골 환자전이 있습니다. 그 개를 치료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임상 경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4년 전 당시 10살 (사람 나이로 70살)이며 허리가 긴데쉬훤드'종자의 개입니다. 그 개의 뒷 두다리가 마비되어 전혀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어서 내원 하였습니다. 개 주인은 중년 여인으로 중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중의학(한의학)을 선호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개의 척추 부위를 X-Ray로 찍어보니 흉추 4-5-6 사이에 disc가 돌출된 추간원판 돌출증 질환이었습니다. 개 주인은 침으로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5주 동안 침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외과 전문 의사로 보내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잘 걷고, 달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후유증인 통증을 치유하기 위해 수술 직후 진통제를 복용하는 대신 3주간 8차례의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필자는 더 이상 침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그녀는 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침치료 비 일회 80 달러를 지불 하면서) 지금도 저의 병원으로 매 주 정기적으로 침치료를 받고자 내원합니다.

2년 전 어느 날 아침, 개는 일어 나기는 하지만 걷지를 못해 2차례 3일 간격으로 전침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견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개의 겨드랑이에 조그마한 혹이 생겼습니다. 침으로 혹 주위를 자침했습니다. 자침한 혈자리 이름은'아씨혈'입니다. 아씨혈이란 경혈외에 존재하는 혈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내원했을 때 그 혹이 깜짝같이 없어 졌습니다. 주인의 설명에 의하면 침 치료를 받은 그날 부터 혹이 서서히 말라서 가늘어 지더니 이틀 전에 푹 떨어 졌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도 똑같은 모양의 혹이 다른 부위에 또 생겼습니다. 똑 같은 방법으로 침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혹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피부에 붙어 있었습니다. 몇차례 침치료로 실패를 하게되어 진정제를 주사후 국소마취해서 수술로 제거 하였습니다. 국소 마취제에 포함되어 있는 혈관 수축제 에피네프린 때문인지 진정제인 에이스프로마진 때문인지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여 두번다시 하기 싫은 아주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힘든 수술치료를 했습니다.

지난 몇주전 개의 피부가 아토피성 hot spot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알리지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주사와 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차례 침치료를 했습니다. 2주 후 hot spot 이 사라지고 피부가 멀쩡해졌습니다.

**필자의 저서:** 수의침구학 (영지 문화사, 2004), 수의한방요법(서울시 수의사회,2005), 동물이 아프니 우짚꼬 (도서출판 동행, 2010). 